

간호학생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 -발생요인과 결과요인을 중심으로-

임 미 립* · 양 순 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건강을 유지 및 증진, 혹은 질병으로 인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초점을 둠으로 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인간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직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은 타학문에 비해 인간의 생명, 존엄성, 권리 등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가치로 삼는 학문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중요시된다.

Katz는 가치표현의 기능은 개인의 가치관과 자아상을 표현하는 기능으로서의 태도를 말하며 지식의 기능은 개인이 사회를 이해하는 기준이나 참조하는 틀로서 태도가 가능하다고 본다.(구정숙, 1994:5-8)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해 알고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준비상태(정길수, 1985:85)로 그 수준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후천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와 성격, 소속집단의 규범과 가치, 그리고 경험과 학습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된다(송대현,1983:85)

간호학생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강의, 임상실습을 통한 대상자와의 관계, 교수 및 의료팀

과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학생활동, 문헌 등의 정보, 기타 환경적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양진주, 1999:208) 간호는 대상자와 간호사의 만남에서 시작하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간호사가 가진 가치체계에 의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간호대상자는 건강, 경제, 학력, 종교 등 다양한 삶에 따른 각각의 고유성을 지닌 존재이나 의료환경은 의료인 문화가 대상자 문화를 지배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기 쉬우므로 간호사의 대상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간호학은 환자 중심의 간호교육과는 달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한 사회문제인 빈곤과 건강에 관련된 교육 경험이 부분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이미 사회화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간호학생의 빈곤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의 기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영역에서는 학생간호사나 전문직 간호사의 빈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그러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다소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빈곤계층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며(민경환 1989), 사회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인식, 정치적 성향, 일에 대한 태도(Van Soest, 1996), 개인, 사회적 영향요인이 빈곤에 대한 태도(Osgood, 1977; Grimm & Orten, 1973:

* 동우대학 간호과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Feagin, 1969; Alston & Dean, 1964) 등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 환경요인으로 사회복지교과과정과 관련된 요인에서는 수업에서 빈곤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이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Bronstein & Gibson, 1998) 전문인의 빈곤에 대한 태도나 미래의 전문인으로서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환경이 실제로 학습자의 빈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도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 현재 간호교육과정에 있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빈곤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간호교육에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이 지각하는 빈곤 개념에 발생원인과 결과에 대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빈곤의 태도수준과 관련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학생들의 빈곤의 발생요인에 대한 태도를 규명한다.
- 3) 간호학생들의 빈곤의 결과요인에 대한 태도를 규명한다.
-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빈곤의 발생요인에 대한 태도 정도를 분석한다
-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빈곤의 결과요인에 대한 태도 정도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빈곤 : 빈곤은 일반적으로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 기준과 별개의 생존개념으로 본 절대적 빈곤,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하는 상대적 빈곤, 그리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주관적 빈곤이 있다(김두호, 최일섭, 김태성, 나성린, 1991:41-58).

본 연구에서 빈곤은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빈곤을 의미한다.

빈곤에 대한 태도 :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행동하려는 체계화된 경향으로 대상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의 속성을 포함하며,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것이다(김영미, 1993:11, 전병재, 1978:320-321). 본 연구에서 빈곤에 대한 태도는 Barrie G. Stacey등(1989)이 사용한 대학생의 빈곤과 부유의 지각사정 도구에 준 하는 빈곤의 발생 요인과 이러한 빈곤으로 초래되는 결과 속성을 빈곤의 태도로 보았다.

4. 연구의 제한점

빈곤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시각에 따라, 또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할 수 있어 명확한 개념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빈곤에 대한 태도측정도구가 아닌 서구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빈곤에 대한 태도측정도구이므로 우리나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I. 문헌 고찰

1. 태도 개념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행동하려는 체계화된 경향으로 대상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의 속성을 포함하며,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것이다(김영미, 1993:11, 전병재, 1978:320-321).

태도의 요소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홍대식, 1993:162). 인지적 요소는 개인이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 이해 등으로 평가적인 신념을 의미하며 어떤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한다. 감정적 요소는 특정대상에 대해 호의적, 비호의적, 친근감 같은 것으로 태도의 핵심적 요소다. 그 이유는 감정적 요소가 결여 되면 인지적 요소는 더 이상 태도가 아닌 신념이나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차배근, 1992:30-31). 행동적 요소는 태도와 관련된 모든 행동적 준비상태로 만약 대상물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태도 인지에 따라서 지지 또는 공격적 행동에 옮기려는 성향을 말한다(정길수, 1985:48-49). 이러한 태도는 욕구 만족의 과정에서 그리고 접촉하는 정보에 의해 형성되며, 개인의 소속 집단과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의 인성이 반영되기도 한다.(Baggenet, 1994, 정길수

1985:550-51) 예를 들면 대상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인 편견에 영향을 주는 성격으로는 권위주의 성격은 편견에 쉽게 빠지게 된다(민경환, 1989:147).

태도의 변화는 기존에 형성된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태도의 형성 및 기존 태도의 강화 등을 포함한다(차배근, 1992:55) 태도의 변화는 인지적 접근과 심내적 접근이 있는데 인지적 접근은 경험(접촉, 학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게 되면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Freeman, 1981)을 말하며 심내적 접근은 개인의 성격이나 소속 집단의 사회적 규범이 상호관련 되어 일어나는 태도의 변화를 말한다(Newcomb, 1950)

요약해 보면 태도는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 습득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내포하며 개인의 욕구, 성격, 경험이나 학습 등을 통한 정보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됨을 알 수 있다.

2. 빈곤에 대한 태도

태도는 가치지향적인 행동성향을 포함하여 그 내용과 범주에 따라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주로 인지적 측면의 고정관념, 감정적 측면의 편견 그리고 행동적 측면의 차별 등을 들 수 있다(정길수, 1985:70-72).

고정관념은 인종, 지방별, 계층별 등의 범주로 분류하여 동일 범주에 있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편견은 특정 집단 혹은 구성원에 대해 충분한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회내의 소수집단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편견으로서, 때로는 사회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민경환, 1989:146). 차별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행동을 실제로 상황 요인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불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빈곤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측면에서는 긍정-부정, 감정적 측면에서는 호의-비호의,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는 적극-소극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이는 어느 측면을 더 강조 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대수, 1993). 빈곤계층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보면, 빈곤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결함 때문에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편견은 빈곤한 대상자들을 게으르고 일할 수 있는데도 의지가 없는 존재로서 바른 가족관을 가지지 못하는(Handler & Hansenfeld,

1991; Katz, 1989; Goodwin, 1983)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eagin(1972)은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은 게으름, 개인적 나쁜 습관으로, 구조적 설명요인으로는 경제적(자본주의), 정치적 사회적 차별 요인을 빈곤의 책임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운명론적 설명요인으로는 불행,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와 같은 요인으로 빈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요인을 가지고 미국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50%가 개인적 설명요인을 선택하였고 그보다 약간 적게는 구조적 설명요인을 선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Alston & Dean(1972: 18)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빈곤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이며 빈곤의 요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본 사람의 88%가 빈곤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모(1985:20-21)청소년 8,23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빈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대상자의 54.7%가 개인과 사회의 양자 책임, 25.8%는 개인의 책임, 그리고 14.1%가 사회의 책임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의 빈곤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국민의 복지의식이 개인적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53%,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22%로 특히 고층주와 하이트칼라 계층이 근로자에 비해 개인의 책임을 더 주장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빈곤계층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많이 향상되고 있음이 주장되고 있다(김영모, 1992:6-7)

빈곤의 태도요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Peplau(1973)는 사회관과 빈곤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부의 불공정한 분배와 기회에 대한 차별, 불평등의 신뢰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의 피해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Van Soest(1996)는 미국4개 대학 222명의 사회관과 불우계층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와의 관계를 본 결과 $r=.1902(p<.05)$ 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에 대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우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Grimm & Orten(1973:96-97)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빈곤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성장기때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빈곤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현재의 계

층수준과 빈곤의 태도와의 관계연구를 보면 Alston & Dean(1972: 18)은 34%의 중상층 이상의 전문가 집단이 빈곤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Feagin(1969)은 50%의 중류층이 빈곤의 개인적 원인을 지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김상균(1994)은 주관적 계층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를 본 결과 자신을 하류 계층으로 인식한 사람이 보다 평등 지향적이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았으며, 서울 지역 대학생 852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복지 의식을 조사한 결과 부(父)의 생활수준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김상균, 1995) Williamson, J. B.(1974)는 보스턴의 백인 여성 300명의 소득 수준과 빈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수입이 많을수록 빈곤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빈곤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계층,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원인 및 결과 요인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학과 중 2개교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에 협조하기를 동의한 간호학생 286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3. 연구도구

빈곤에 대한 태도측정도구는 Barrie G. Stacy의 (1989) 등이 개발한 청소년의 빈곤과 부유의 태도에 대한 도구 중 빈곤의 발생요인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가족적, 그리고 운명론적 요인 각각 4문항씩 16문항과 그리고 빈곤함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가족적 요인 각각 3문항씩 12문항을 합하여 총 28문항이다. 본 연구의 문항들은 5인의 전문가에 의해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고 설문에 사용된 척도는 Likert식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은 대상자의 나이, 학년, 종교, 외 신앙의 의존도, 사회관, 가족소득수준은 1-10점 척도로 측정 후 다시 각각 4개의 명목 척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두 12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여 예비조사(56명)를 실시 후 수정 보완하였다.

4.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97년 10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28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t-test, F-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참조)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2학년(33.6%), 1학년(26.9%), 4학년(21.3%) 3학년(18.2%) 순으로 평균 연령은 22세(SD=1.289)로 나타났다.

종교분포는 기독교(38.1%), 무교(31.5%), 천주교(2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교(9.1%)를 포함하여 68.5%였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의존도는 전혀 없음이 38.1%, 약간 있음이 24.1%로 신앙의 의존도가 보통 이상인 대상자(37.6%)에 비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Mean=4.573, SD=2.500). 이러한 결과에서 미루어 보면 종교를 가진 것과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의존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가족의 소득 수준은 보통(53.2%), 가난(24.7%), 부유(22%)순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균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Mean=6.392, SD=1.359).

대상자의 사회관은 자본주의 성향이 4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립형(40.9%), 다소 사회주의 성향(8.7%) 사회주의 성향(3.5%) 순으로 나타났다((Mean=7.192, SD=1.574) 대부분의 학생이 자본주의 성향의 분포를 보임은 한국사회의 자본주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No. = 286

특 성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학년	1학년	77	26.9
	2학년	96	33.6
	3학년	52	18.2
	4학년	61	21.3
종교	기독교	109	38.1
	천주교	59	20.6
	불교	26	9.1
	무교	90	31.5
	무응답	2	0.7
신앙의존도(1-10점)	신앙심 전혀없음(1-3)	109	38.1
	조금있음(4-5)	69	24.1
	보통임(6-7)	67	23.4
	신앙심 있음(8-10)	41	14.2
가족소득수준(1-10점)	매우가난함(1-3)	7	2.4
	가난함(4-5)	64	22.3
	보통임(6-7)	152	53.2
	부유함(8-10)	63	22.0
사회관(1-10점)	강한 사회주의 성향(1-3)	10	3.5
	다소 사회주의 성향(4-5)	25	8.7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립형(6-7)	117	40.9
	자본주의 성향(8-10)	134	46.8

의 속에서 간호학생들이 성장발달을 해 왔음에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2. 빈곤의 발생요인에 대한 태도

빈곤의 발생요인에 대한 태도는 내적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 요인, 운명요인으로 각각 4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 가능 득점은 5점 -1점, 요인별 가능 득점은 20점 - 4점이었다(표 2참조)

빈곤의 발생요인별 특성을 보면 사회적요인(Mean=13.206, SD=2.912), 내적요인(Mean=3.374, SD=.994), 가족요인(Mean=11.483, SD=2.831), 운명요인(Mean=9.434, SD=3.3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발생요인별 문항별 특성을 보면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제도/세금제도의 잘못'(Mean=11.640, SD=2.285) '월급/급여가 평균적으로 낮음' ((Mean=3.364, SD=.944) '국가경제체계의 모순'(Mean=3.297, SD=.976),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야하는 국가경제의 실패'(Mean=3.171, SD=.888)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빈곤의 사회적 발생요인은 개개인이 일차적으로 경험하는 월급이나 세금 등에서 크게는 국가경제체계의 모순/실패의 관점으로 즉 빈곤을 사회구조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적 요인에서는 '능력(지식)부족'(Mean=3.528, SD=.968), '돈관리 부족'(Mean=3.290, SD=2.285), '노력부족/게으름'(Mean=3.252, SD=1.005)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못생겨서'(Mean=1.570, SD=.914)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내적 요인에서 보면 빈곤을 개인의 외모가 아닌 개인의 능력, 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개인의 책임으로 빈곤을 인식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요인으로는 '집안에 돈이 없어서'(Mean=3.273, SD=1.027), '집안에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어서'(Mean=2.930, SD=1.106)가 비교적 높게 나온 반면 빈곤 가족에서는 성공에 대해 거의 강조되지 않아서'(Mean=2.315, SD=1.062)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빈곤 그 자체가 결국 집에 돈이 없어서, 또 이러한 가족 여건이 성공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표 2〉 빈곤의 발생요인에 대한 태도 정도분포

빈곤의 발생요인		Mean	SD
내적요인	노력부족/계으름	3.252	1.005
	돈관리 잘못	3.290	.919
	능력(지식)부족	3.528	.968
	못 생겨서	1.570	.914
소계		11.640	2.285
사회적 요인	경제제도/세금제도의 잘못	3.374	.993
	월급/급여가 평균적으로 낮음	3.364	.944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야하는 국가경제 체계의 실패	3.171	.888
	국가경제 체계의 모순	3.297	.976
소계		13.206	2.912
가족요인	집안에 돈이 거의 없어서	3.273	1.027
	빈곤가족에서는 성공에 대해 거의 강조되지 않아서	2.315	1.062
	집안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어서	2.930	1.106
	가족생활의 긴장(고달픔, 피로)	2.965	1.032
소계		11.483	2.831
운명요인	운이 나빠서	2.619	1.001
	빈곤은 사람의 힘을 초월한 것	2.409	1.171
	빈곤은 운명적인 것임	1.969	1.027
	내기, 전망, 기회 등을 얻는 운이 없음	2.473	1.083
소계		9.434	3.329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 빈곤이 초래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이러한 가족이 성공을 해야한다는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 운명요인에서는 '운이 나빠서'((Mean=2.619, SD=1.001)외에는 모두 평균이하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빈곤은 운명적인 것이다'((Mean=1.969, SD=1.027)가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대상자들은 빈곤 그 자체를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보다 부분적으로는 가족적 요인으로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사회와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모(1985:20-21)의 8,281명 청소년 대상연구에서 빈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에 54.7%가 개인과 사회의 양자 책임이라고 보았으며 1990년대 연구 문헌에서도 빈곤의 개인 및 사회의 책임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하층 및 노동자 일수록 빈곤의 개인 및 가족 책임을,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화이트칼라나 노동자에 비해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 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 (김상균외,1995, 김영모,1992, 김성한,1990) 즉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빈곤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는 빈곤의 원인과 그 책임이 사회 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유사하나 사회적 책임의 관점으로 보는 점에 대해 더 구체적인 추후연구를 통해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빈곤의 결과요인에 대한 태도

빈곤의 결과요인에 대한 태도는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 요인의 각각 3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 가능 득점은 5점 - 1점, 요인별 가능 득점은 15점 - 3점이었다(표 3참조).

빈곤의 결과요인별 특성을 보면 경제적요인(Mean=11.497, SD=2.449), 심리적요인(Mean=11.346, SD= 2.500), 가족요인(Mean=9.776, SD=1.943), 사회적 요인(Mean=8.794, SD=2.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빈곤의 결과요인에 대한 태도정도 분포

빈곤의 결과요인		Mean	SD
경제적 요인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돈이 없음	3.804	1.035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음	3.965	1.022
	타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음	3.727	1.147
소계		11.497	2.449
심리적 요인	자기자신이 싫어지게 됨	3.570	1.086
	삶에 지쳐 있게 됨	4.028	.940
	미래를 두려워 함	3.748	1.063
소계		11.346	2.500
사회적 요인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함	3.538	.997
	사회의 짐이 됨	2.080	.957
	사회적 위치가 낮음	3.175	1.207
소계		8.794	2.262
가족 요인	생활의 어려움	4.210	.972
	걱정거리가 많음	3.594	1.107
	도덕성이 낮음	1.972	1.022
소계		9.776	1.943

각 요인별 문항별 특징 중 비교적 높은 태도가치를 나타낸 것은 가족요인의 '생활이 어려움' ((Mean=4.210, SD=.972) 심리적 요인의 '삶에 지쳐있게 됨'(Mean=4.028, SD=.940), '경제적 요인의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돈이 없음'(Mean=3.804, SD=1.035),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함'(Mean=3.538, SD=.9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빈곤의 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현상을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의미부여를 많이 한 반면(Barrie G. Stacey, Ming S, Singer & Garth Ritchie, 1989; Stacy & Singer, 1985) 본 연구대상자는 가족요인인 생활의 어려움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은 미국의 청소년은 13세 이후 이미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반면 한국 가족의 형태는 고등학교까지는 주로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적인 성향이 서구 사회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빈곤의 발생 요인 태도정도

빈곤의 4가지 발생 요인과 신앙의 의존도, 자신의 사회관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정도와의 유의성 검정 결과 빈곤발생의 내적 요인에서 사회관(P<.01)과 가족소득수준(P<.05)에서, 사회적 요인과 운명요인에서는 대상자의 사회관(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주의 성향보다 자본주의 성향에서 빈곤의 발생 요인은 노력부족, 능력부족, 돈관리 능력부족 등 내적 요인인 개인의 책임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성향 일수록 경제제도, 국가경제체제 모순 및 실패 등의 사회적 요인이 그리고 운명요인에서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할 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본 연구의 결과는 Feagin(1972)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은 게으름, 개인적 나쁜 습관으로, 구조적 설명요인으로는 경제적(자본주의), 정치적 사회적 차별 요인을 빈곤의 책임으로 본 견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빈곤의 결과요인 태도정도

빈곤의 4가지 결과 요인과 신앙의 의존도, 자신의 사회관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정도와의 유의성 검정 결과 빈곤의 결과 요인중 가족의 소득수준과 빈곤의 결과요인인 심리적요인과 가족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표 5참조)

즉 가족의 소득수준이 빈곤할 수록 '자기 자신이 싫어지게 됨', '삶에 지쳐 있게 됨', '미래를 두려워 함' 등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태도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적 요인은 매우 빈곤함이나 부유군에 비해 빈곤함이나 보통인 군이 '생활이 어려움', '걱정거리가 많음'등에 대한 가족 요인에 더 높은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표 5참조)

〈표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빈곤의 발생요인태도정도 분포

대상자의 특성	빈곤발생요인											
	내적요인			사회적요인			가족요인			운요인		
	M±SD	F	P	M±SD	F	P	M±SD	F	P	M±SD	F	P
신앙의 의존도												
① 믿음있음	11.68±2.13			13.07±2.93			11.70±2.71			9.90±3.26		
② 조금있음	11.62±2.51	.2227	.8806	13.15±3.07	1.1026	.3484	11.48±2.95	.2301	.8754	9.60±3.22	2.2584	.0818
③ 보통임	11.49±2.27			12.97±2.89			11.31±2.94			9.38±3.44		
④ 믿음이 깊음	11.85±1.91			13.95±2.39			11.39±2.54			8.26±3.37		
경제관												
① 사회주의 성향	10.30±2.71			14.90±3.41			12.50±3.06			11.40±3.62		
② 다소 사회주의 성향	10.60±2.59	4.4875	.0043	14.48±2.43	3.5061	.0159	11.72±2.65	1.7817	.1508	9.32±3.47	3.7476	.0115
③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립	11.52±2.26			13.20±2.76			11.78±2.50			9.97±3.31		
④ 자본주의 성향	12.03±2.11			12.84±2.99			11.09±3.07			8.83±3.18		
가족경제상태												
① 매우 어려움	10.42±2.37			15.00±1.63			13.00±3.05			11.00±2.51		
② 어려움	11.06±2.31	2.7206	.0448	13.76±3.27	2.1253	.0972	11.95±2.59	1.6598	.1759	10.07±3.41	1.7169	.1637
③ 보통임	11.81±2.39			12.98±2.92			11.34±2.90			9.21±3.48		
④ 넉넉함	11.93±1.83			12.96±2.48			11.15±2.80			9.14±2.81		

〈표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빈곤결과요인태도정도 분포

대상자의 특성	빈곤결과요인											
	경제적요인			심리적요인			사회적요인			가족적요인		
	M±SD	F	P	M±SD	F	P	M±SD	F	P	M±SD	F	P
신앙의 의존도												
① 믿음있음	11.45±2.51			11.11±2.58			8.75±2.33			9.52±1.80		
② 조금있음	11.51±2.75	.0224	.9954	11.26±2.80	.5367	.6575	8.88±2.44	.1113	.9534	9.78±2.17	5.915	.6210
③ 보통임	11.53±1.97			11.55±2.08			8.74±1.94			9.92±1.76		
④ 믿음이 깊음	11.43±2.24			11.60±2.11			8.68±2.19			9.92±1.83		
경제관												
① 사회주의 성향	11.90±2.28			11.30±2.35			9.10±2.80			9.80±1.31		
② 다소 사회주의 성향	11.44±1.66	.4911	.6888	11.88±2.18	.4244	.7357	8.28±1.94	.8742	.4549	9.84±1.37	.0616	.9800
③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립	11.66±2.41			11.26±2.48			8.99±2.12			9.82±1.88		
④ 자본주의 성향	11.32±2.61			11.32±2.58			8.69±2.38			9.72±2.12		
가족경제상태												
① 매우 어려움	12.42±2.57			12.28±2.62			8.57±1.27			9.42±1.27		
② 어려움	12.01±2.56	2.2657	.0811	12.06±2.21	3.2007	.0238	9.10±2.24	2.4257	.0659	10.14±1.68	2.8166	.0395
③ 보통임	11.44±2.29			11.21±2.46			8.94±2.23			9.87±1.96		
④ 넉넉함	10.98±2.59			10.82±2.70			8.14±2.34			9.20±2.0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원인 및 결과요인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학과 중 협조가 가능한 2개교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에 협조하기를 동의한 간호학생 286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빈곤에 대한 태도측정도구는 Barrie G. Stacy의 (1989) 등이 개발한 청소년의 빈곤에 대한 태도로 빈곤의 발생요인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가족적, 그리고 운명론적 요인 각각 4문항씩 16문항과 그리고 빈곤함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가족적 요인 각각 3문항씩 12문항을 합하여 총 28문항이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문항을 합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7년 10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28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t-test, F-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2학년(33.6%), 1학년(26.9%), 4학년(21.3%) 3학년(18.2%) 순으로 평균 연령은 22세(SD=1.289)이다. 종교분포는 기독교(38.1%), 무교(31.5%), 천주교(2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종교를 가진 학생은 불교(9.1%)를 포함하여 68.5%였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의존도는 전혀 없음이 38.1%, 약간 있음이 24.1%로 신앙의 의존도가 보통 이상인 대상자(37.6%)에 비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Mean=4.573, SD=2.500). 대상자 가족의 소득 수준은 보통(53.2%), 가난(24.7%), 부유(22%)순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준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Mean=6.392, SD=1.359) 대상자의 사회관은 자본주의 성향이 4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립형(40.9%), 다소 사회주의 성향(8.7%) 사회주의 성향(3.5%) 순으로 나타났다((Mean=7.192, SD=1.574)

2. 빈곤의 발생요인에 대한 태도

빈곤의 발생요인별 특성을 보면 사회적요인(Mean=13.206, SD=2.912), 내적요인(Mean=3.374, SD=.994), 가족요인(Mean=11.483, SD=2.831), 운명요인(Mean=9.434, SD=3.3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발생요인별 문항별 특성을 보면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제도/세금제도의 잘못'(Mean=11.640, SD=2.285) '월급/급여가 평균적으로 낮음'(Mean=3.364, SD=.944) '국가경제체계의 모순'(Mean=3.297, SD=.976),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경제의 실패'(Mean=3.171, SD=.888) 순으로 나타났다. 내적 요인에서는 '능력(지식)부족'(Mean=3.528, SD=.968), '돈관리 부족'(Mean=3.290, SD=2.285), '노력부족/게으름'(Mean=3.252, SD=1.005)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못생겨서'(Mean=1.570, SD=.914)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가족 요인으로는 '집안에 돈이 없어서'(Mean=3.273, SD=1.027), '집안에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어서'(Mean=2.930, SD=1.106)가 비교적 높게 나온 반면 '빈곤 가족에서는 성공에 대해 거의 강조되지 않아서'(Mean=2.315, SD=1.062)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운명요인에서는 '운이 나빠서'(Mean=2.619, SD=1.001)외에는 모두 평균이하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빈곤은 운명적인 것이다'(Mean=1.969, SD=1.027)가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3. 빈곤의 결과요인에 대한 태도

빈곤의 결과요인별 특성을 보면 경제적요인(Mean=11.497, SD=2.449), 심리적요인(Mean=11.346, SD=2.500), 가족요인(Mean=9.776, SD=1.943), 사회적 요인(Mean=8.794, SD=2.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문항별 특징 중 비교적 높은 태도가치를 나타낸 것은 가족요인의 '생활이 어려움'(Mean=4.210, SD=.972) 심리적 요인의 '삶에 지쳐있게 됨'(Mean=4.028, SD=.940), '경제적 요인의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돈이 없음'(Mean=3.804, SD=1.035),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함'(Mean=3.538, SD=.997)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빈곤의 발생 요인 태도정도

빈곤의 4가지 발생 요인과 신앙의 의존도, 자신의 사회관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정도와의 유의성 검정 결과 빈곤발생의 내적 요인에서 사회관(P<.01)과 가족소득수준(P<.05)에서, 사회적 요인과 운명요인에서는 대상자의 사회관(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주의 성향보다 자본주의 성향에서 빈곤의 발생 요인은 노력부족, 능력부족, 돈관리 능력부족 등 내적 요인인 개인의 책임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성향일수록 경제제도, 국가경제체제 모순 및 실패 등의 사회적 요인이 그리고 운명요인에서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할 수록 높게 나타났다.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빈곤의 결과요인 태도정도

빈곤의 4가지 결과 요인과 신앙의 의존도, 자신의 사회관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정도와의 유의성 검정 결과 빈곤의 결과요인중 가족의 소득수준과 빈곤의 결과요인인 심리적요인과 가족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가족의 소득수준이 빈곤할 수록 '자기 자신이 싫어 지게됨', '삶에 지쳐 있게 됨', '미래를 두려워 함' 등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태도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적 요인은 매우 빈곤함이나 부유군에 비해 빈곤함이나 보통인 군이 '생활이 어려움', '걱정거리가 많음' 등에 대한 가족 요인에 더 높은 태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교육현장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학생들은 빈곤을 운명론적인 관점이 아닌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성향이 있음.
2. 간호학생의 사회관이 자본주의 성향일수록 개인의 책임에, 사회주의 성향은 사회의 책임에 대한 태도가 더 강함
3. 간호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4. 빈곤의 태도형성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5. 간호학생의 빈곤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검토가 요구됨.

참 고 문 헌

- 구정숙 (1994). 태도 및 설득에 대한 기능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pp3-21.
- 김경동, 이은숙 (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김경동, 설동훈 (1994). 청소년의 사회적 삶과 태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6, pp 95-155.
- 김대수 (1993). 태도 형성론-마음(가치, 태도)의 교육. 서울: 우신 출판사.
- 김상균 (1994). 한국인의 복지의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3, pp 121-167.
- 김상균, 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5), 한국사회복지학회, 1995.3, pp 1-33.
- 김성한 (1990). 보건사회부관료의 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모 (1981). 한국사회복지의 문제.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영모 (1985). 한국 청소년의 사회관, 『한국사회정책연구』, 제6권, 한국사회정책연구소, 3월, pp 3-34.
- 김영모 (1992).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서울.
- 나은영 (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 1985-199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2), pp 3-33.
- 문창진 (1988). 빈곤과 건강의 사회학적 인식-빈곤의 산물 및 재생산구조로서의 보건의료-, 한국보건사회학회.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pp 146-168.
- 송대현 (1983).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 신혜수 (1976). 빈곤 사회학에 관한 일 연구, 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진주 (1999). 간호학생의 자아개념과 간호관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 중앙의학, 64(2), 207-215.
- 정길수 (1985). 사회심리학. 서울: 범문사.
- 차배근 (1985). 태도변용이론. 서울: 나남.

- Alston, J. P. & Dean, K. I. (1972). Soci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welfare recipients and the causes of poverty. Social Service Review, vol.46, no.1. March. U. of Chicago press. pp 13-23.
- Baggett, P. D. (1994).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Poor.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h. D. Dissertation.
- Barrie G. Stacey (1982). Economic socialization in the pre-adult yea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59-173.
- Bernadine Lacey (1988). Definition of Poverty Needs Rethinking, Nursing & Health care, 13(2).
- Barrie G. Stacey, Ming S, Singer & Garth Ritchie (1989). The Peerception of poverty and Wealth among Teenage University Students, Adolescence, Vol XXIV, No.93, Spring193-207.
- Dianne Skafte (1989). The Effect of Perceived Wealth and Poverty on Adolescents Character Judgm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1), 93-99.
- Feagin, J. (1972). Poverty : we still believe that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Psychology Today, vol.6, no.6. pp 101-110,129(scale).
- Fishbie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publishing: Massachusetts.
- Grimm, J. W. & Orten, J. D. (1973). Student attitudes toward the poor. Social Work, vol.18, no.1. pp.94-100.
- Gurr, T. (1970). Why Men Rebel?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 Handler, J. F. & Hasenfeld, Y. (1991). The moral construction of poverty: Welfare reform in America, Newbury park, CA: Sage, rehner et al.(1997)에서 재인용.
- Streeten, P., & S. Burki. (1978). "Basic Needs : Some Issue", World Development Vol.6
- Van Soest, D. (1996). Impact of social work education on student attitudes and behavior concerning oppress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32, no.2. pp 191-202.
- Willamson, J. B. (1974). Beliefs about the motivation of the poor and attitudes toward poverty policy. Social Problems, vol.21, no.5. pp 634-648.

- Abstract -

Key concept : Nursing students, poverty, and attitudes

Th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s Poverty - Based on the Factors Causing Poverty and the Factors Caused by Poverty

Yang Soon-ok* · Im Mi-lim**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abstracted as follows.

- 1) The study was done on 48.3% seniors(138), 34.3% sophomores, and 17.5% juniors mostly ranging in age from 21 to 22. the largest number of students at 38.1%(109) were Christian, followed by 31.5%(90) were Confucian, 20.6%(59) who were Catholic, and 9.1%(26)who were Buddhist.
- 2) Concerning the economic views, 46.8%(134) preferred Capitalism 40.9%(117) preferred a combination of Capitalism and Socialism, 8.7%(25) were for more or less Socialistic in view point, and 3.5%(10) for Socialism.

* Nursing Dept., Hallym University

** Nursing Dept. Dong-U College

3) Among the internal factors causing poverty, 'lack of ability(knowledge)' scored the highest at 3.528, and 'beauty or appearance' scored the lowest at 1.570. Social factors scored high in 'bad economic/tax policies' at 3.374 and 'low average in wages' at 3.364. Among family matters, 'not much money at home' scored the highest at 3.273, and 'low expectation of success in poor families' scored the lowest at 2.315. On concerns of fate and destiny, 'bad luck' turned out to be the most likely cause of poverty with the score of 2.619, and 'destined poverty' was the least likely cause with the score of 1.969.

4) The high scoring economical consequences of poverty was 'not able to do as one desires' at 3.965, and 'no money to buy things wanted' at 3.804. 'Gets tired of life'(4.028) scored high in psychological consequences showing that poverty affects these matters greatly. 'Looked down on by others'(3.538) scored high in social circumstances, and 'feels like a burden to society' scored low at 2.080.

Among family matters, 'hard life' scored high at 4.210, and 'low morality' scored low at 1.972.

5) Significant differences($p=.00$) were found between economic views and what significance certain internal factors caused poverty these differences were also related to a reliance on religion, economic views, and economic statu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between economic status and internal factors causing poverty($p=.04$), economic point of view and social factors($p=.01$), and economical point of view and luck related matters($p=.01$) When the consequences of poverty were considered,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hate towards oneself', 'tired of life', and 'afraid of the futu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on to economic status($p=.02$) Family matters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on to economic status($p=.03$). With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wealth causing factor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a person's economic point of view and economic status when considering and internal or social factors.